美 캠프워커 70년만에 시민 품에 안겼다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 반환터 개발사업 탄력기대

美 캠프워커가 7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대구시는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터(6만 6884㎡ 2만여 평)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완료함에 따라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미군부대 캠프워커 부지 일부 반환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으로 시작됐다.

전국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이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대구 남구 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인 헬기장(H-805) 및 동편 활주로 일부 반환 계획이 포함됐다.

한·미 양국의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장기간 이어왔다.

2020년 12월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캠프워커 일부 66,884㎡(2만여 평) 규모 부지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70년 이상 주둔했던 미군기지 일부가 공여 해제돼 토양오염 정화가 착수, 대구도서관 우선 착공과 남은 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가 추진됐다.

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완성도 높은 정화를 위해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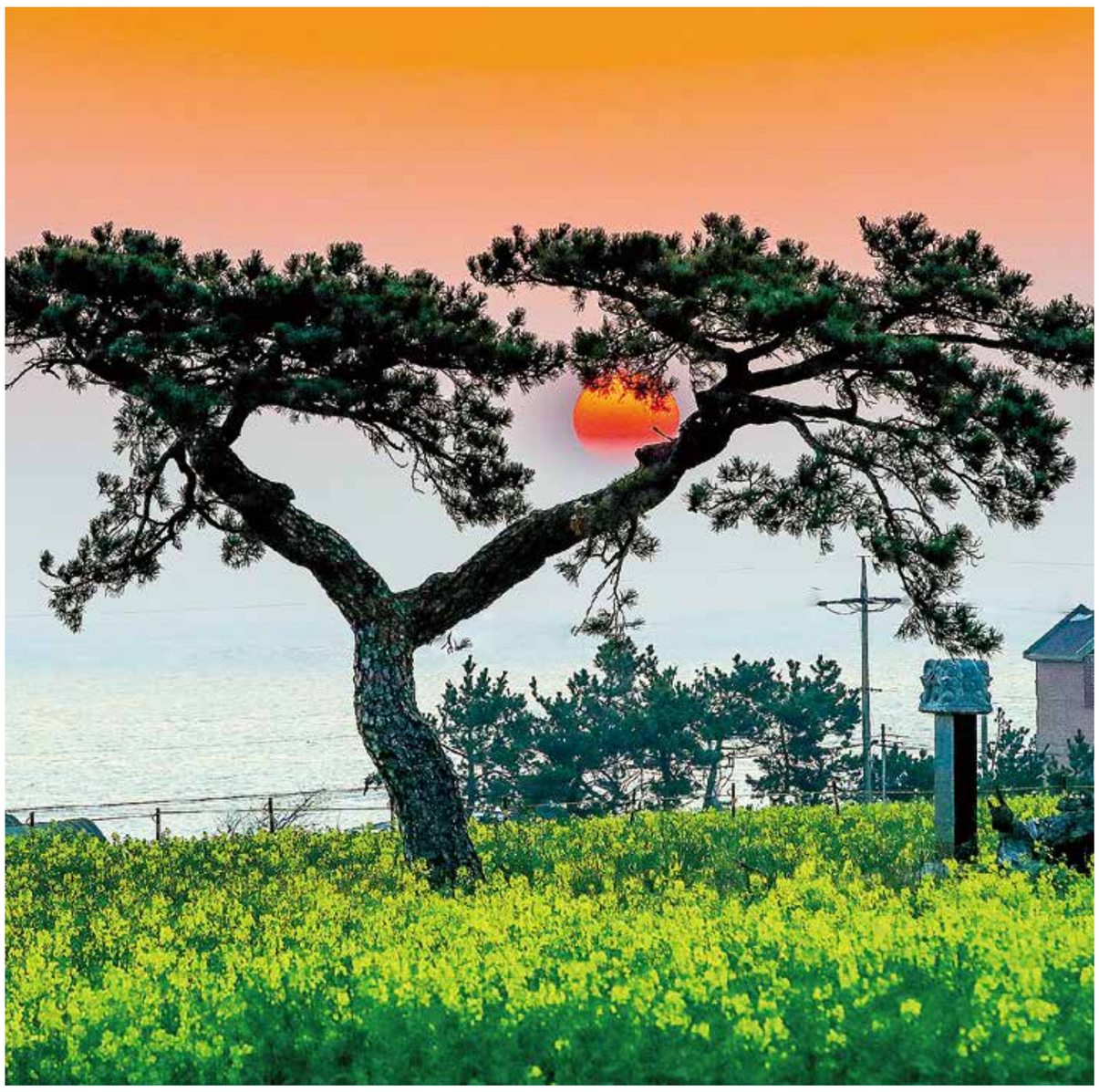
정화설계,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3년간의 토양오염 정화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동편), 지하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다양한 반환부지 개발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반환 터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한이다.

시는 군부대 이전과 아울러 미군부대(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국방부에 SOFA 과제 소요 제기를 했고, 올해 내에 정식 SOFA 과제 채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캠프워커 반환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내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17일 오전 유채꽃이 핀 구룡포 해돋이 마을 소나무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구쳤다. 사진=이상운 기자

❙ 단체장 일정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8일 오후 경산상공회의소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3월 18일 오전 9시 30분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경북도민 작년 소비자 불만, 의류·섬유 가장 많아

도민 소비생활 불편함 없도록 행정서비스 더욱 강화 총매진

지난해 경북도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위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일망 상담 처리시스템이다.

경북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5035건으로 전년 대비 10.7% 줄었다.

기초자치단체 상담은 포항시 2489건, 구미시 1983건, 경산시 1351건, 경주시 11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후 조치 내역은 환급 889건, 교환 108건, 수리·보수 261건, 계약이행 573건, 계약해제·해지 377건, 상담 정보제공 1만 93건 등이다.

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의류·섬유 376건, 이동전화서비스 369건, 유사 투자자문 258, 세탁 서비스 244건, 기타 건강식품 24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 불만이 27.5%, 계약해제·위약금 불만이 25.1%, 계약불이행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7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온라인거래 4299건, 전화권유판매 830건, 방문판매 590건, TV홈쇼핑 311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남성용 내의류가 153.3%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국외여행(148.1%), 피부과(100%),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93.8%), 필라테스(85.4%) 순으로 높았다.

남성용 내의류의 경우, 남성 전용 온라인 쇼핑몰 '제이브로스'의 사이트 폐쇄로 인한 배송 또는 환급 지연 관련 상담이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예상치 못한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트 폐쇄나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 구매 결제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추천하고 있다.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결제 때 신용카드사에 할부금의 청구를 중단할 수 있는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경북도민 소비자 상담 1위였던 유사 투자자문(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은 758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낮아지며 진정세로 돌아섰다.

도는 "지난해 현장 순회교육과 숏폼 영상 제작으로 인한 정보제공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상담 건수 가운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1만4192건 중 40대가 3603건으로 가장 많이 상담받았다.

다음으로 50대(3278건), 30대(3074건), 60대(2376건), 20대(1133건) 순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이하는 노트북컴퓨터(2건), 20대는 헬스장(46건), 30대는 의류·섬유(82건), 40대는 이동전화서비스(99건), 50대는 의류·섬유(92건), 60대는 기타 건강식품(77건), 70대 이상은 기타 건강식품(49건)이 각 연령별 상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소비자 경제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소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국 단위 중앙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평가에서 연속 2년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경제교육 교안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차르트 음악을 활용한 경제 음악극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미경 기자

22대 총선,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9~3월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시·군·구 홈페이지 정부24… 신고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9~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3월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황태용 기자

경북 학교에만 있는 아이쉼터, 관광객도 "고맙습니다"

쉼터 설치학교 설문조사 결과 학생 93%, 학부모 92.8% 만족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심아이쉼터' 지원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 그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까지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아이쉼터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CCTV, 교육 홍보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의 편의 기구를 갖추고 지어진 실외 부스로 등하교 때 학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공간이다.

대부분 교문 가까이에 설치된다.

교육청은 2022년 14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16교에 이어 올해는 23교에 이를 설치한다.

경북교육청이 쉼터 설치에 나서게 된 것은 폭염, 강우, 한파, 미세먼지 등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등하교 때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편하게 있을 곳이 없는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매년 늘어나 건강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2년 이 쉼터를 설치하자 아이와 학부모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응이 폭발적이다.

지난 해 4월 쉼터 설치학교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 93%, 학부모 92.8%의 만족도를 보였다.

안동여중의 학부모는 교육청 누리집에 "맞벌이 부부라 등교시간 보다 일찍 아이를 학교에 태워 줘 덥고 춥고 궂은 날씨에는 늘 아이에게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이제는 아이가 쉼터에서 편히 기다리다가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같은 호응으로 경북교육청의 이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 사업이 해를 거듭하자 쉼터의 디자인과 내부 장치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다.

영천 성남여중의 쉼터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CCTV, 교육 홍보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의 '기본' 편의 기구 외에도 쉼터 안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상태를 살필 수 있다.

밤에는 관리자가 직접 이 곳에 와 소등을 하고 문을 잠그는 불편이 없도록 휴대폰으로 부스 내의 모든 시설을 제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기있는 시설이지만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의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신청만 하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지만 올해 신청한 곳은 20여개 학교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현장점검 결과 쉼터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신청한 23개 학교 모두에 이를 설치해준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삼국유사테마파크, "아기 염소와 특별한 만남"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는 18~새달 28일까지 먹이 체험 행사를 한다.

아기염소 체험단 먹이 체험행사는 지난달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탄생한 아기염소 6마리와 기존의 5마리를 합한 총 11마리의 대가족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했다. 아기염소들과 공감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화이트데이와 봄 시즌 맞아 새내기 할인행사와 화이트데이 할인행사를 17일까지 열었다. 더 많은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www.3964themepar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공원역, 수성알파시티역으로 역명 개정 추진

수성알파시티 대구 미래비전 대표지역

대구시는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의 역명을 보다 대표성 있고 역세권의 발전상을 담은 명칭인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바꾸는 역명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수성알파시티는 대공원역에서 최단거리 기준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난해 9월 종전 수성의료지구에서 수성알파시티로 지구 명칭이 변경, 역세권의 대표 지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수성알파시티는 대구시의 미래비전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비수도권 최대 ICT/SW 집적단지인 ABB 산업 거점으로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계획에 따라 역세권의 대표 명소로 인식되고 있다.

역명으로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2호선 개통 당시 역 인근에 대단위 공원이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대공원으로 역명이 제정됐다.

이후 대공원 조성이 장기화되면서 역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공원 조성 예정지가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공원역을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변경하는 역명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역명 개정은 수성구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시 지명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수성알파시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수성알파시티는 입주기업과 상주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단지역이 아니라 공동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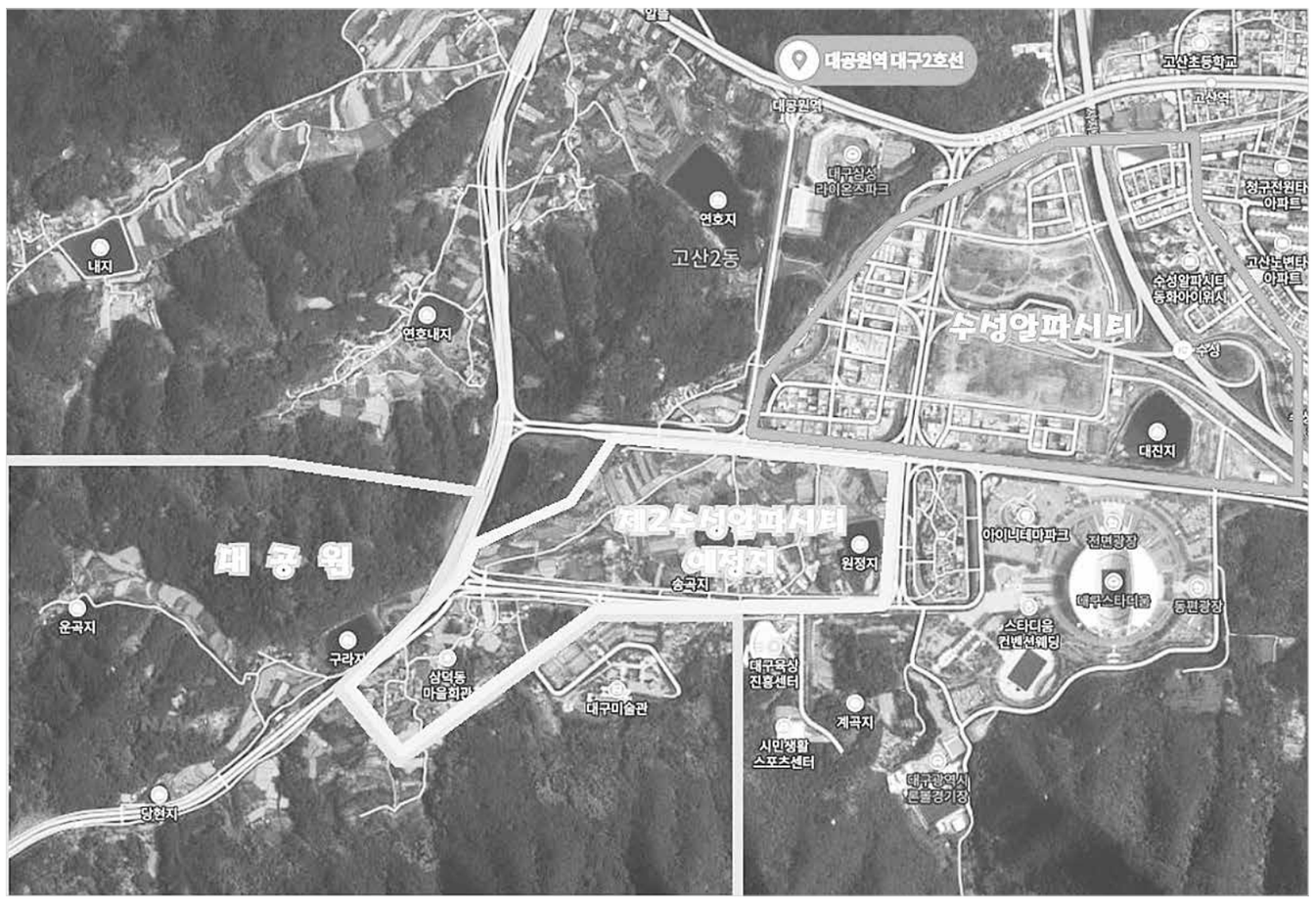
때문에 지역의 한 모빌리티 전문기업이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10월(4개월간)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시는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도입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수성알파시티로의 지구 명칭 변경,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역세권의 발전상을 반영, 역명으로서의 대표성을 감안, 대공원 역명을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및 수성알파시티 위치도.

동구청,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올 1월1일기준 개별토지 6만7777필지 열람 시작 심의 거쳐 4월 30일 공시

동구청은 오는 19일~새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구청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6만7777필지에 대한 열람을 시작한다.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동구청 누리집(https://dong.daegu.kr/main.do)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토지정보과(053-662-3054~3058, Fax 053-662-3059)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참여 동호회 모집

동호회 역량 강화 경비 최대 600만원 지원…3월 29일까지

(재)달성문화재단은 19~29일까지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호회를 모집한다.

달성 생활문화동호회는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동호회다.

군은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지원 및 외부활동을 위한 발표회(프로젝트)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동호회 회원이 문화 활동의 주체자로서 군민들과 함께 공유, 지역 생활문화권 확산을 꾀하는데 6년째 공모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공모는 생활문화동호회와 성인(19세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호회가 그 대상이며 동호회 간 연합지원을 비롯하여 신규 동호회의 신청 또한 가능하다.

공모의 지원 규모는 역량강화 5팀, 발표활동 20팀, 거점활용 2팀 내외이다.

1년 이내 신규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유형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난.

공연·전시·체험형으로 구분, 공모가 가능한 발표활동 유형에는 최대 600만 원, 사내 직장 동호회의 활동을 장려하는 거점활용 유형에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두 가지 유형(역량강화, 발표활동)에서 달성군을 거점으로 한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는 거점활용 유형이 추가된 것이 예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다.

거점활용 유형으로 선정된 동호회에게는 직장인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한다.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생활문화동호회는 생활문화 전문인력인 코디네이터에게 동호회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전시 등의 자체 발표회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올 11월에는 결과발표회 개최를 통해 모든 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갈고닦은 기량과 실험적인 생활문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동호회원들이 문화의 생산자이자 향유자로서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기반을 구축해 나갈 역량 있는 동호회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업의 공모 접수는 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콘텐츠사업팀(053-668-4244)으로 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위험간판 철거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주인 없는 위험 간판 무상 철거 2020~작년까지 115건 간판철거

중구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과 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현재 간판 소유주 또는 주인이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단순철거 및 행정처분 중인 불법 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고, 1개 업소당 철거 신청 간판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28)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철거 신청 접수된 간판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철거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위험간판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고,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은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을 시작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5건의 방치간판을 철거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아트피아·노보필 오케스트라 대구문예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수성아트피아 상주단체인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지원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하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으로 지역 대표 작품 발굴·제작을 지원한다.

수성아트피아와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순수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자체 기획공연 △대규모 공연을 공연장과 함께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소년 연주자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회공헌 및 교육프로그램 △클래식 음악의 친숙함을 전달하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두 단체는 육성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5개 팀 중 하나로 운영지원금 7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클래식 관객 수요를 개발하고, 예술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공극장과 민간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협력네트워크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

조미경 기자

"행복 담고 사랑 실은 반찬 나눔 봉사"

군위군 부계면 여성자원봉사대 지역나눔 문화확산 선구자 역할

군위군 부계면여성자원봉사대가 부계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2024년도 총회를 가졌다.

총회는 지난 13일 열렸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밑반찬을 만들어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 당일 봉사대 대장을 포함한 11명의 회원은, 2023 봉사활동 자체평가와 2024 봉사 계획 수립 후 4종의 밑반찬과 국을 직접 조리, 부계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발굴한 대상자들(7세대)에게 배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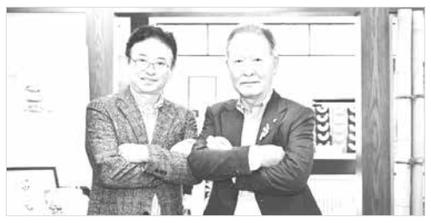
전화자 여성자원봉사대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끼니를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귀주 부계면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해 주신 대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부계면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부계면 여성자원봉사대는 11명의 회원들로 구성, 매년 반찬나눔봉사(7세대/연 10회)를 펼치고 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지원 나서

경북도가 지난 1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공감대 확산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1만원 기부 운동'을 추진하자 해외에서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동경도민회 김연식 상임이사(사진 오른쪽)가 저출생 극복에 써달라며 최근 30만엔(약 268만원)을 경북도에 전달해 왔다.

김 이사는 지난 8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후루사토 페스티벌 도쿄'에 견학차 방문한 경북도 방문단을 찾아와 기부했다.

김 이사는 경북 고령군 출신으로 일본에서 재일한국인귀금속협회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재일본 한인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세계교육 표준 삼는다

2024 국제교류 운영학교 116교 선정
국제교류 교 현장 기대 부응 한 몫

경북교육청이 공모로 2024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116교를 선정했다.

국제교류 운영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초·중·고 130여 개 학교가 신청해 심사를 거쳐 지난해보다 24교가 증가한 총 116교(초등학교 11교, 중학교 37교, 고등학교 68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의 여건, 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 직업계고 8교 중 7교가 공모에 참여, 모두 선정됐다.

이는 경북교육의 관심과 방향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학교의 국제교류는 온라인 교류, 방문/초청 교류, 블렌디드교류(온라인+방문/초청) 등 3개 유형 중 학교의 특색에 맞게 자율적인 주제로 운영된다.

2024 국제교류 운영학교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다.

수업 나눔 교류,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교류, 세계시민 교육 교류,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 부모 나라 방문 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24교가 증가해 경북교육청 역사상 가장 많은 116교가 국제교류를 운영하게 됐다"며 "국제교류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해외 3개국의 한국교육원(로스앤젤레스, 호찌민시, 독일) 과 연계, 각국의 교육기관과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 간 교류, 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인식 제고 등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분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도민 정신건강 높이는데 앞장

도·시·군, 예비 부모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경북도가 도내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예비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한다.

먼저 보건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난임이나 출산 전후 여성이 겪는 우울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마음체크데이' 웹사이트를 운영, 온라인과 대면 상담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자가 위험군에 해당하면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 등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준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월부터 '어서와, 아빠는 처음이지?'라는 신규사업을 개발해 양육 스트레스 관리, 영유아 응급대처교육, 요리수업(미역국 등), 기타 힐링 프로그램으로 초보 아빠의 마음을 지원한다.

포항시 북구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산후 우울 예방과 아기에게 편지쓰기 등 엄마와 자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아가! 반가워'를 운영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청장년층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외로움 극복을 위한 G-공감지기, 대화기부운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대구은행, '경북도 마을기업' 마케팅 교육

DGB대구은행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관련 단체 협업 확대

DGB대구은행은 지난 15일 노파크 글로벌벤처동에서 (사)지역과소셜비즈 마을기업지원센터와 협업해 경상북도 마을기업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뜻한다.

교육에는 마케팅 전문 기업 동아애드㈜ 곽대훈 대표를 초청했다. '2024 홍보·마케팅 전략 및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곽대훈 대표는 소상공인 마케팅의 필요성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해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의 주요 내용 등을 강의했다.

참석한 마을기업의 주요 사업 종목이 농수산 관련 기업임을 감안하여 외식업 트렌드를 강조해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사)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이사장은 "이번 DGB대구은행과의 협업 교육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참여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DGB대구은행 소호컨설팅팀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경영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3년 동안 20여개 이상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선정 지원에 힘을 보태는 한편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시작으로 (사)지역과소셜비즈 마을기업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경북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해 영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미경 기자

김철문, 도민에 신뢰받는 경북경찰 건설

예천경찰서 방문
경청과 응답 통한
소통의 시간 가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이 예천경찰서와 예천지구대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유공직원을 표창,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어르신 맞춤형 교육과 시설 개선을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 교통관리계 권다영 순경을 표창했다.

특수상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킨 이지영 경사를 표창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현장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칭찬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북경찰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실제 청장께서 언론 기고를 하거나 수범사례 당사자에게 직접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들었다. 현장 직원들에게 이런 칭찬은 최고의 피로회복제이다. 나도 동료들을 더 많이 자주 칭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칭찬을 통해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고, 민원인의 말을 경청, 그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경북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수성구 '시화거리'…예산낭비 거리 전락

김경민 수성구의회 부의장
'동성시장' 예술 문화공간
사람찾지 않는곳으로 전락

지난 15일 늦은 저녁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조성된 '시화거리'.

이곳은 2014년 길이 180m 정도의 상가 담벼락을 따라 시화와 그림으로 구성된 거리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시화거리 홍보 표지판이 보이지 않고 인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경민 수성구의회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화거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와 보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을 봤을 때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동성시장에 들어선 문화예술공간이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자 김 부의장은 "수성구가 '공방'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곳은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작가가 공방 갤러리를 운영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업 등이 진행한다.

그는 "'들안예술마을 청년예술공방'은 수성구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동성시장에 있는 예술문화공간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성구는 흩어진 요소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주·예천 명소 여행, 산림치유원서 휴식·힐링을~

국립산림치유원 주관
산림 치유·관광 접목
경북 e-누리사업 추진

국립산림치유원이 산림치유와 관광을 접목한 '경북 e-누리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산림치유원은 '경북 e-누리사업' 일환으로 이달부터 경북여행몰에서 경북도와 연계해 국립산림치유원과 지역 관광지를 접목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경북 e-누리사업'은 경북도 및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해 국립산림치유원이 위치한 영주시와 예천군 관광객들에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영주시 상품은 국립산림치유원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과 소수서원 입장권으로 구성된 '다스림 스테이'가 있다.

예천군 상품으로는 국립산림치유원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과 예천곤충생태원 입장권, 예천목재체험장 체험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은 "국립산림치유원이 위치한 영주시, 예천군은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어 매력적인 관광명소"라며 "많은 관광객이 영주·예천을 여행하며 산림치유를 통해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경주시, 수소전기자동차 54대 구매비용 보조금 지원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비 64억원을 들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차종은 승용차 45대, 화물차 3대, 시내버스 2대, 광역버스 1대, 청소차 3대 등 총 54대다.

지원 금액은 1대 당 △승용차 3250만원 △화물차 4억 5000만원 △시내버스 3억원 △광역버스 3억 5000만원 △청소차 9억원 등이다.

보조금은 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12월 13일까지다.

경주시,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목표액 9465억

경주미래신성장 동력 확보
정부 주요 정책 연계 사업
지속적인 발굴 절대 필요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9465억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알천홀에서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국비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글로벌 경기 위축,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액 9227억원 대비 238억원 증액한 9465억원으로 잡았다.

△신규사업 51건 △계속사업 109건 등 총 160개 등 국비 9465억원(총사업비 8조 3722억원)의 사업비를 건의한다.

새로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양성자 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70억원) △신라문화 관광단지 조성(10억원) △국립 대한민국 관광역사관 건립(25억원) △무장애 예술학교 운영(5억원)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20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30억원) 등이 있다.

계속사업으로는 △신라왕궁(월성) 복원·정비(60억원)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981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90억원) △농소~ 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3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선제 대응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등 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전액 국비사업 및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벚꽃 만끽해요… 벚꽃축제 22일 개막

벚꽃 라이트쇼, 벚꽃코인 활용
친환경 프로그램 이색적 행사

경주벚꽃축제가 경주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다.

시는 벚꽃 개화시기를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릉원돌담길 일대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녁 시간에도 머무를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벚꽃 라이트쇼'의 야간 콘텐츠를 마련했다.

푸드트럭의 다양한 메뉴는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로깅 부터 비건(vegan)* 음식체험 까지 친환경 소재 프로젝트도 준비했다.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벚꽃 거리예술로, 벚꽃 라이트쇼) △벚꽃 포트존&힐링쉼터 △친환경 프로젝트 △돌담길 레스토랑, 벚꽃 마켓 △벚꽃 놀이터, 타투&무료인화사진 등이 있다.

벚꽃 거리예술路는 축제기간 16팀이 서커스, 버블, 마술, 재즈 등의 수준 높은 전문 거리예술 공연을 39회 선보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벚꽃 라이트쇼는 19시, 20시에 1일 2회 조명, 레이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신비로운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축제장 곳곳에는 이색 포토존은 물론 인조 잔디위에서 자유롭게 앉아 힐링을 즐기는 피크닉 공간이 준비돼 있다.

친환경 프로젝트의 핵심은 '벚꽃코인' 이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벚꽃코인은 친환경 프로젝트 '함께해 봄'에 참여하면 수령 가능하다.

벚꽃코인을 제시하면 벚꽃마켓 및 푸드트럭에서 1만원 당 1천원 할인되며, 도로 위 놀이터에서 업사이클링 특별체험에 참여 가능하다.

돌담길은 행사기간 동안 벚꽃 아래서 즐기는 야외 레스토랑으로 변신한다. 스테이크, 타코야끼, 에그와플 등 판매메뉴도 다양하다.

그간 일부 축제에서 논란이 된 바가지요금은 사전에 참여자들과 가격, 품목 협의를 통해 근절에 나선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기를 배부하며, 사용한 용기는 직접 반납하도록 안내해 환경보호 실천 기회도 가진다.

축제 기간에만 허락된 도로 위 놀이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파스텔 색감으로 채워진 업사이클링 음악, 미술,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경주, 벚꽃, 봄을 이미지화한 타투와 인생네컷 무료체험도 가능하다.

시는 도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대릉원돌담길 일원(황남빵 삼거리~첨성대 삼거리)이 축제기간 전 방향 교통을 통제한다.

주낙영 시장은 "벚꽃축제 명칭 변경을 통해 대릉원돌담길 벚꽃의 브랜드 가치, 대외적 인지도, 정체성 확보를 꾀했다"며 "봄꽃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경주로 오셔서 벚꽃 비를 맞으며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마음껏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황지구-현곡면 잇는 황금대교 우선 개통

25일 0시 기해 황금대교 우선개통
금장·용황 일원 만성 교통난 해소

경주시가 현곡면과 황성동을 잇는 황금대교가 오는 3월 25일 0시를 기해 우선 개통한다.

경주 금장지구와 용황지구는 물론 황성동 등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된다.

황금대교는 폭 20m, 연장 371m 규모의 왕복 4차선 교량으로 총 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됐다.

차량 통행 뿐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겸용 보행로도 함께 조성했다.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한 뒤 3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우선 개통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해 다음달 중 정식 개통한다.

황금대교는 경주시가 만성적인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에 설득한 끝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간 현곡면 및 용황지구, 황성동 일대는 아파트 등 잇따른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한 탓에 강변로 및 금장 일원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황금대교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황금대교 개통에 따른 우회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됨을 물론,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큰 역할이 기대된다.

경주시, 지역 SW융합기업 키운다…

경주시가 오는 22일까지 'SW(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경주 지역 특화산업인 모빌리티 및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의 SW융합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기획됐다.

지원 규모는 지정과제·자유과제 2개 부문에서 기업 2곳을 선정하며, 제품 상용화에 드는 제반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SW융합 기업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모두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수행기관인 포항TP 누리집(www.ptp.or.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minseok.kim@gbi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TP 경북SW진흥본부(☎054-223-2182)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사업장 APEC 정상회의 유치 분위기 고조

경주시 건설과 직원들과 전문건설협회 경주지회 회원 50명이 공동으로 신당천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계몽운동을 했다.

안전관리 계몽운동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건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경주 이미지를 한 번 더 다졌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건설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시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주의 비전을 공유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윤경희 청송군수는 18일 진보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 교육에 참석한다.

울릉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펼쳐

울릉경찰서는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경찰로 다가서고있다.

서는 지난 13일 신학기를 맞아 저동 관해정광장에서 여성청소년계·범죄예방대응계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관해정 광장에서 오고 가는 지역 군민들과 상인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근절 및 조기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주민들이 아동학대에 관련 현장상담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근절 활동을 전개했다. 정윤환 기자

청도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야간 운영시간 연장한다

청도군보건소는 매주 수요일, 보건소 내소가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운영시간 연장했다.

청도군은 주간에 직장 생활, 거리 제약 등으로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저녁 8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문 금연 상담사가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대면·전화를 통해 1:1 맞춤형 금연상담을 진행한다. 조여은 기자

김광열, '현장 소통의 날'… 워킹맘 애로사항 수렴

10번째, 영덕군 특성살린 돌봄 정책 사업 발굴 추진

김광열 영덕군수가 군민과 현장소통의 날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은 10번째로 진행됐다.

이날은 아이를 키우는 영덕군 여성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관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한 워킹맘들은 가장 힘든 고충으로 '소아과 부족' 문제를 꼽았다.

김 군수와 함께 의료와 교육 인프라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맞벌이 부부들은 방학이 되면 특히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없는데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선착순으로 마감돼 이용하기 어렵다"며, "양질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나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 군수는 "지난달 개장한 영덕목재문화체험장에 이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고자 계획 중"이라며, "큰 틀에서 경북도의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적용해 육아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 아이 키우는 것만큼은 그 어떤 지자체보다 좋은 영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영덕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앞으로 개관할 통합공공도서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모차 이용 환경 개선, 문화센터 건립, 생애주기별 이용 시설 및 혜택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김 군수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덕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1월 1일기준 , 4월 8일까지 의견서 접수

청송군은'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11만8846필지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도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추진

기준점 관리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영양군은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측량기준점 955점(지적삼각보조점 396점, 지적도근점 559점)을 대상이다.

3월부터 9월까지 멸실 또는 파손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사업으로 인한 공사로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파악하고 재설치한다.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토지의 경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원인 조사를 진행해 무단으로 훼손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관련 사업시행자가 직접 복구 및 재설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황재은 종합민원과장은"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윤동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청송군-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청송군은 지난 13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승택 청송부군수, 아누선 캄싱사왓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해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도입 및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조, 지원에 대한 사안을 협의했다.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로 송출 상대국의 정세 변화에 따른 변수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군관계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타국에서의 안전한 근로 생활을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농가에 큰 힘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지역에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국을 다양화하여 농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이번 협약이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박남서 영주시장은 18일 오후 이계천 공사현장(영주시 이산면 석포리200-1)에서 열리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착공식에 참석한다.

신나리원정대 3기, 봉화 홍보 앞장 서다

봉화군 청소년 기획홍보단(신나리원정대 3기)은 지난 16일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2회기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발대식 이후 두 번째 활동으로 영상촬영 기법, 편집 기술을 익히고, 디지털 드로잉 기초 및 샘플 굿즈 제작 등의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신나리원정대 3기는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8회기 동안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등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역량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도출된 결과물로 영상 및 굿즈를 제작해 봉화군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서비스 강화

봉화군가족센터는 오는 4월 11일까지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미래를 꿈꾸는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정착 과정을 설계하고, 컴퓨터활용능력 증대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지원에도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주 2회 여성문화회관 정보이용센터에서 진행되며 컴퓨터 교육 기초과정(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으로 구성돼 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체제 본격적으로 가동

영주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오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실시하는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등록된 재외국민이다.

경북·경남 초광역협력 업무협약식…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남부내륙철도와 연계
거대경제권 형성 기대
100년 미래 향한 변곡점

고령군이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에 나섰다.

군은 가야산을 인접하고 있는 4개 지자체와 연계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

지방화시대에서 지역 주도의 관광 연계협력 사업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고령군(군수 이남철), 성주군(군수 이병환), 거창군(군수 구인모), 합천군(군수 김윤철) 등 경북과 경남의 접경지역 4개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4개 자치단체장은 인구감소라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단체 간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거점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4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의 현안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해 남부지역의 거대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100년 미래를 향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으로 4개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한 각 지역의 실제적 현황을 인식하고, 관광을 매개로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구상했으며, 상호 다른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내용은 △초광역 협력사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관광거점화를 위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브랜드 구축과 공동 홍보마케팅 등으로 향후 가야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자체별 세부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의 관광 관련 정책 기조가 관광객 지역 분산, 광역연계관광 확대 추진 등으로 변화해 왔다.

인접 지역에 소재한 관광지와 서비스를 연계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특화 관광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초광역 관광'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4개 자치단체는 동서남북간 2개의 철도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역세권 형성과 더불어 지역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에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경남의 기초 자치단체간 연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방시대의 물꼬를 튼 가야산권 4개 지자체는 실질적 · 통합적 연계협력의 초광역 관광개발을 통해 동서내륙 경제벨트의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광역권 산업벨트 구축으로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지난해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 이어 달빛철도의 고령역사를 기대하며, 경북도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펼치면서'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초광역 협력사업의 선도모델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적극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 소백산에서 '여유만만 심신(心身) 돌봄' 운영

생태탐방원과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시범 운영거쳐 4월부터 매월 진행

영주시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과 함께 '여유만만 심신(心身) 돌봄' 웰니스 관광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시는 지난 13~14일 운영한 '여유만만 심신(心身) 돌봄' 시범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탐방원은 지난해 말 제정된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지역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자원인 소백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박 2일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부터 운영한 외국인 대상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등산, 인삼요리 체험 등 웰니스 관광 콘텐츠 'Sobaeksan Global Friends Program'을 개발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이어지는 호평 속에 한국관광공사 선정 개별 '외래관광객 대상 대한민국 10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에 시와 탐방원은 외국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 웰니스 관광과 부합하는 콘텐츠는 유지하고, '숲속 명상', '웰빙음식 체험' 등을 추가해 '여유만만 심신(心身)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으로 첫째 날은 소백산 산행(달밭골-비로봉-달밭골)과 숲속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둘째 날은 '천년고찰' 부석사 탐방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을 활용한 인삼요리(인삼 불고기 등) 만들기로 진행된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보완해 4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일정은 소백산생태탐방원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강나영(44세, 풍기읍)씨는 "1박 2일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즐거운 경험을 했다"며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소백산과 특산물 풍기인삼을 잘 활용한 우수한 체험프로그램이 생기게 돼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좋은 프로그램은 운영해준 주재우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탐방원과 상호협력해 영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했다.

영천시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의지 및 성과창출 노력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 △사전컨설팅 사례 평가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의지 및 성과창출 노력 분야에서 우수공무원선발규모 및 인센티브 확대, 기관장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체감형 시책 발굴과 규제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수변공원 야영장의 알박기 텐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캠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전 컨설팅 사례 평가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경로당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 분야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항상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직원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시민 불편 사항이나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저출생과의 전쟁, 영천시도 적극 동참한다

2023 출산율 1.19명 도내 시부 1위

영천시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다.

시는 2023 출생·사망통계에서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도내 시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영천시 저출생 극복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 분야별 과제(4대 분야 72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연계 가능한 과제에 대해 대응책을 공유한 후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영천시는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돌봄·주거·출생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1차 대응회의를 열었으며, TF 추진단(단장 김진현 부시장)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주요 시책으로, 제이병원(분만산부인과)과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역밀착형 공공주택 조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확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맞춤형 시책(특별휴가, 유연근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출산 축하박스 제공 등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생은 지역을 넘어서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결혼-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부로 와닿는 체감형 시책을 적극 추진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의성교육지원청, 해외유학생 글로벌 취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의성교육지원청, 의성유니텍고 우수 해외 유학생 격려 방문

경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의성유니텍고에 방문해 지난 4일 입학한 태국 학생 8명의 학습을 격려했다. 해외 우수 유학생들에게 글로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은 경북도내 전체 8개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성에서는 의성유니텍고가 유일하다.

이들 학생들은 국내 우수 기업과 국외 취업을 목표로 3년간 의성유니텍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이날 유학생들을 격려 방문한 경북도교육감 임종식과 의성교육지원청 박명호 교육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해외 유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과 생활 환경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살펴본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 학생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함께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육장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즐거운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재성 기자

칠곡군의회·성주군의회·고령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눈길

지난 14일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와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 그리고 성주군의회(의장 김성우) 의원들이 고량사랑기부금 상호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평소 활발한 교류를 가지는 칠곡군의회, 고령군의회, 성주군의회의 돈독한 관계와 각 군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합심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주군의회 의장실에 모인 의회의장들은 각 의회의원들을 대표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교차기부식을 거행햇다.

칠곡군의회는 고령군으로, 고령군의회에서는 성주군으로, 성주군의회에서는 칠곡군으로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 기회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인근 지역 상호간 경제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회들이 계속 교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기부한 기부금은 각 지역의 민생안정과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된다. 조미경 기자

상주시 견훤산성 국가 사적 승격 준비에 분주

상주시는 '상주 견훤산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3일 화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상주 견훤산성'은 1984년 경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000년 초반부터 학술지표조사와 동문지 발굴조사 등을 실시했다.

2020년에는 국가 사적 승격을 위한 조사용역을 통해 가치를 조명받았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2021년 경북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 사적 승격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여러 번의 현장 조사와 검토를 통해 명칭 변경 등의 보완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시는 화북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적 승격 추진 과정을 소통하고 견훤산성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인 한국성곽연구소 심광주 소장을 초청해 '상주 견훤산성의 가치와 명칭 제고'라는 주제로 주민들을 위한 강연회도 열렸다.

또한 상주시에서는 2022년 문화재청 사적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산성 내 건물지 터를 정밀 발굴 조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상주 견훤산성 국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구미시,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업 유치‥3,000억 원 이상 투자

이수스페셜티케미컬·경북도·구미시 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MOU 체결
구미국가산단 내 공장 신설100명 고용

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이철우 경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류승호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수그룹 계열사인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정밀화학 기업으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황화 리튬(Li2S)은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구성하는 핵심 원료로 제조공법이 매우 까다로워 양산하기 어렵고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손을 꼽는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을 위해 구미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투자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2025년부터 신규고용 100명과 3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의 신규 입주로,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첨단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이수의 시장 선점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내일이 기대되는 경산으로 놀러오세요

경산 시티투어 운행 기념식
3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

경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전정에서 경산시장 및 경산시의회 의장, 시티투어 참가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티투어 운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티투어 첫 운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버스 래핑 오픈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 촬영을 마치고 소원성취코스인 갓바위 일원으로 투어를 시작했다.

시티투어 참가자는 "대구에 살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경산의 명소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어서 무척 설레며,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경산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티투어를 통해 평소 접근이 어려운 다른 지역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우리 시 관광지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산 시티투어는 정기코스(2개)와 수시코스(테마별코스)로 3월 14일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 30분에 임당역에서 출발한다.

정기코스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진행하는 '소원성취투어'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출발하는 '삼성현명품투어'가 있다.

소원성취투어는 경산 삽살개육종연구소(일반체험), 불굴사, 샘이깊은물(허브체험), 갓바위 일원 관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성현명품투어는 임당고분군, 경산시립박물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반곡지로 이루어져 있어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사진도 찍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유익한 관광지 정보까지 들을 수 있다.

아울러 3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28, 29일 남매지, 삼성역,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으로 벚꽃길 명소 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과 문의는 홈페이지(www.gscitytour.com) 또는 부림관광(주)(☎053-841-7001)로 하면 된다. 신경운 기자

성주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옛 선현들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다

성주군은 지난 14일 성주향교 대성전에서 관내 유림회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향교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대제는 전통, 고전, 예술적 가치가 세계에서 유일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음력 2월,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지내는 제사로,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여서 석전대제라 불린다. 이날 성주향교에서 봉행한 석전대제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 경북도의회 강만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현탁 전교가 초헌관을, 이종광 씨가 아헌관을, 이계수 씨가 종헌관을 맡아 예를 갖춰 제를 올리고 그 뜻을 기렸다.

초헌관이 향을 올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5성위에 첫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의식인 오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석전대제가 성주군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예를 알리고 옛 성현의 학덕을 기리는 등 충효사상을 고취시켜 선현들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일본 양궁선수단, 예천으로 전지훈련

일본양궁을 대표하는 궁사들이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을 배우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찾았다.

이번에 예천을 방문한 일본 양궁선수단은 60여 명으로, 남자리커브에 올림픽 6회 연속 출전하는 후루카와 선수를 비롯해 긴기대학교 선수들과 야마다 총감독 및 김청태 코치 등 지도자들로 모두 예천에 머물며 합숙훈련을 한다.

일본 양궁선수단은 전지훈련기간동안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진행한다.

여주시청 5명, 창원시청 7명, 대구 중구청 5명, 안동대 12명 등 국내 양궁선수들과 기록경기 방식으로 교류전도 개최해 경기력 향상과 양국 간 우애를 다지게 된다.

예천군 체육사업소는 김해공항까지 직접 찾아가 일본 양궁선수단을 환영했으며, 13일에는 우리 지역 문화탐방으로 예천 8경 중의 으뜸인 삼강주막과 강문화 전시관을 방문해 일본 양궁선수단에게 예천을 자세하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야마다 감독은 "세계 최고의 양궁경기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예천군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전지훈련을 계기로 파리 올림픽까지 승승장구하는 일본양궁선수단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며 일본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편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크고 작은 양궁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특히 5.21.~5.26.까지 현대양궁월드컵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각종 시설물 보완 작업을 마치면서 훈련 집중도를 높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병욱 기자

우리 시 조례 '주민e직접' 만든다

포항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포항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울진군,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유지에 총력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울진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 온정면 덕인리 산308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돼 3개 읍·면 6개리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됐다.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감염목 제거뿐 아니라 매년 약100ha 예방나무 주사,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산림병해충예찰단과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을 통해 재선충병 의심목을 조기 발견하고 제거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초 발생 이후 추가 발생 없어 2023년 11월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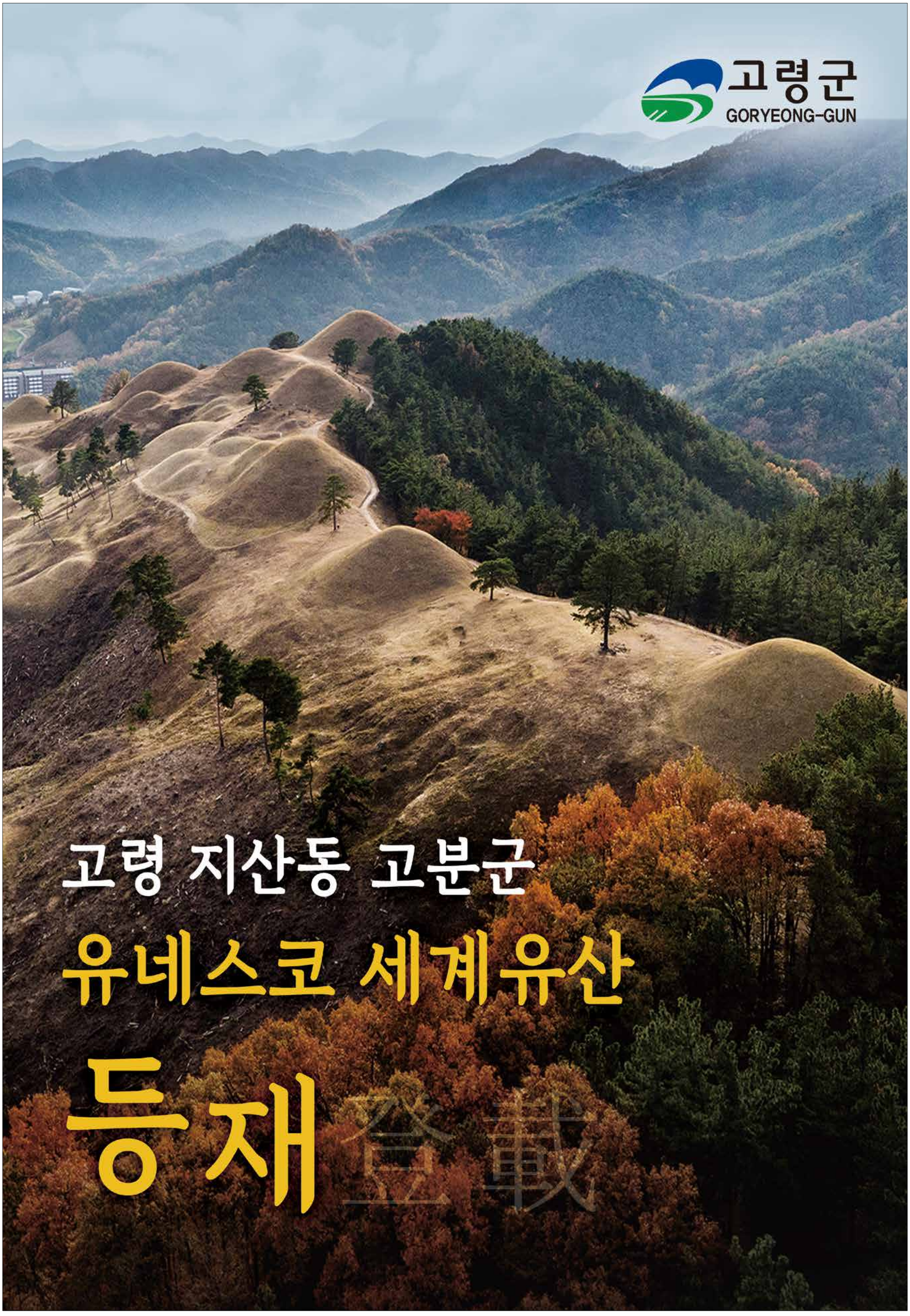
공로로 2023년 12월에는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최근 인근 지역인 영덕군 창수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울진군 경계지(온정면)와 약3km정도 떨어져 있어 온정면, 후포면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과 재선충 의심목 예찰에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온정면 조금리 산65번지 일원에 81ha 대상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선충 의심목 조기발견을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 및 드론 예찰을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국 최고의 금강송 군락지가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림 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병해충 예찰 활동에 힘써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고령군
GORYEONG-GUN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登載